

남해 설악산 가천마을(한지에 수목담채·사진 위)과 이호신 화백.

삶의 근원과 정체성 찾는 '우리 마을 그림순례'

이호신 화백 4월 16~26일 조선일보미술관서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유산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곳, 그런 곳을 그리고 싶어 왔다보니 사람이 나 우리 옛 마을을 그리게 됐습니다."

30여 년간 국내뿐 아니라 인도, 중국, 파키스탄, 일본,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의 산하(山河)를 주유(周遊)하며 사찰과 문화유산 기행, 자연생태 탐사 등의 그림을 그려온 이호신(53) 화백. 그림기행을 통해 삶의 근원과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계속해 온 이 화백이 2002년부터 이 땅의 50여 마을을 그려온 지 7년 만에 '우리 마을 그림순례'전을 갖는다.

4월 16일 오후 5시부터~26일까지 서울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리는 그의 12번째 작품전에는 직접 발품을 팔며 전국의 크고 작은 산과 기암절벽(奇巖絶壁), 그 사이로 감아 도는 물, 그리고 거기에 내려앉은 전통가옥과 사찰을 그린 수묵채색화가 기다리고 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 화실에서 만난 이 화백은 "이 땅의 역사와 삶의 숨결이 옷깃에 담긴 현장을 체험하고 싶었기에 우리 마을을 '답사'가 아닌 '순례'하는 마음으로 그렸다"며, 각 마을에서 며칠씩 주민들과 어울리며 만든 화첩들을 보여준다.

화첩에는 온몸으로 마을을 경험하고 이를 그때그때 붓으로 스케치한 산과 물, 나무와 건물, 사람 등

이 가득 하다. 중요한 주제뿐 아니라 까치밥과 호박, 옥수수과 잠깨, 삼신당의 산신상, 첩보 등 갖가지 이미지가 화폭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들을 토대로 화실에서 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이 화백은 마을을 방문할 때는 그곳 이장님이나 오랜 세월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 잠도 이장 댁이나 마을회관에서 자고, 밥도 주민들의 밥상머리에 함께 앉아 먹었다. 말 그대로 '식구(食口)'가 되어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그들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흡입했다. 그야말로 작품은 현장의 공기와 음식, 잡자리, 인정이 안료(顔料)가 되어 그려진 셈이다. 특히 마을 답사는 꼬부랑, 아리랑 산길을 오르다가 하변, 반대편 언덕에 올라 마을 경관을 조망하기까지 부지런한 발걸음에 실려 이뤄졌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코로 맡고 귀로 들으며 마을을 총체적으로 이해한 작업이다.

때문에 그의 작품은 마을이 하나의 '장면 상'이 아니라 '전체 상'으로 들어온다. 마을의 실경(實景)이 아니라 진경(眞景)을 그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이주헌 미술평론가는 "이호신의 산과 골짜기, 내, 그리고 마을은 다시점(多視點) 하나의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그리는 것에 기대 드려낼 것을 드러내고 감출

것을 감춘다"며, 산청 니구산 남사마을 전경을 예로 든다.

"개천이 감아 돌고 산이 웅기종기 들어선 이 구석저 구석에서 대상들이 서로 뒤워주고 물러나면서 전체의 일개와 조화가 또렷이 그리고 풍성히 드러난다. 사진으로 찍어서는 도저히 마을을 이렇게 명료히 포착할 수 없다. 탁할 것은 탁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시선과 시점의 차이에 따른 대상들의 차이도 유기적으로 이어 본질의 조화를 드러내기 위해 가능한 표현이다."

이 그림뿐 아니라 총주 달래강 단물마을에 달이 뜨고 그것이 강에 비치는 모습, 영양 광려산 두들마들이 산 아래 등지처럼 들어앉아 앞으로 수풀을 드러낸 모습, 곡성 지리산 가정마을이 섬진강 자락과 기차길을 함께 드러내며 드러마처럼 운치를 자아내는 모습도 다시점의 마확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절묘한 대관의 표현이라 설명한다.

이 화백은 "우리 마을 그림순례가 삶의 진원지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돌아보며 국토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생의 지평속에서 심각한 농촌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2)724-6328

김성우 기자 buddhap5@hanmail.net

유채화로 표현한 진공묘유의 禪 세계

비공스님 8~14일 갤러리 서호서 '뜯알의 잣나무' 전



비공 스님의 신작 '뜯알의 잣나무'. 고정관념과 형식을 초월한 표현행위에서 나오는 산과 해, 나무, 탑 등이 추상화된 그림은 생동하는 공(空)을 표현한다.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놈이 본래 있으니/ 어떠한 놈인가/ 조주의 상투를 잡고/ 애걸복걸 하는 그 놈이다." (비공 스님의 시 '주인공2')

공(空) 사상을 재해석한 현대적 선화(禪畵)를 통해 구도(構圖)를 펼쳐온 비공(飛空) 스님이 11번째 개인전 '뜯알의 잣나무'전을 연다. 4월 8~14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서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스님은 조주 선사의 대표 공안 '뜯알의 잣나무'를 유채화를 통해 풀어낸다.

불국사 법주사 송광사 봉암사 등에서 10만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의 비공 스님은 '목우행자(牧牛行者)'란 법호처럼 소(불성)를 키우는 작업의 일환으로 그림을 그려왔다. 1981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각종 초대전과 단체전, 특히 환경 및 통일관련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선(禪)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문인화를 시작으로 수묵과 아크릴 물감을 혼용하는 평면회화와 절 조각을 거쳐 최근의 유채화 작업에 이르는 다양한 작업은 일체의 격식과 고정

관념을 타파하는 구도자의 몸짓이라 할 수 있다.

예전 처럼, 형식을 초월해 단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려진 스님의 이번 작품들은 '공(空)'의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품은 삼원색 중심의 원색적인 유희물감을 두텁게 반복적으로 바르다가, 최종적으로는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형상을 그려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흥겨움이 이글거리는 캔버스 위의 표현행위는 정신집중에 의해 유도됨으로써 자유방언적인 상태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자동기술적인 순수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를 그려낸다.

비공 스님은 "스케치 형식의 간결한 선으로 그려진 풍경이나 집, 담, 해, 새, 나무, 인물 따위의 그림은 공(空)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참된 공은 텅 비거나 적막한 것이 아니라 (비록 허깨비와 같지만) 눈앞에 펼쳐진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세계"라고 말했다.

이번 작품에 대해 신항섭 미술평론가는 "비공 스님은 격렬한 표현행위 이후에 찾아오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표현되는 맑은 심상의 세계를 보여준다"면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스님의 작품들은 보이는 사실에 집착하는 현실의 눈을 마음속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설명했다.

8일 오후 4시 30분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비공 스님의 그림작업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02)723-1864 김성우 기자

복장의식, 만인성불의 퍼포먼스로 재현

선진 스님 '원(願)' 전 10~19일 불일미술관서

4월 10일 오전 오후 6시 30분. 서울 불일미술관에서는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옴마니반메훔' 10만 장 서사원력을 성취하고 법철 스님의 복장(腹藏)의식을 전수받은 선진 스님(대구 보현암 주지·사진)의 다섯 번째 전시회인 '원(願)'전이 바로 그것.



선진 스님은 이날 오프닝 퍼포먼스를 통해 벽면에 만다라로 장엄한 전시장 전체를 부처님 몸으로 삼아 복장의식을 미술적으로 표현한다. 스님은 검정 아크릴판 상단에 다양한 복장물을 담은 후령통을 32개 설치하고, 관람객 중 무작위로 32인을 지정해 호를 점화행사에 동참시킨다.

검정 아크릴이 무명(無明)의 중생을 상징한다면, 32란 숫자는 관세음보살의 32응신을 뜻한다. 터키안 블루로 때깔 짙게 녹은 후령통이 끈으로 들들 묶여있는 것은 중생이 소유한 '은복(隱腹: 내면에 잠재

된)의 여래장(如來藏)'을 암시한다. 스님은 설치작품을 통해 일체중생의 내면에 지혜의 등불을 켜는 만인성불(萬人成佛)의 퍼포먼스를 시도하는 것이다.

또 전시장 한편에는 실크스크린의 진언그림들이 눈에 띈다. 부처님 얼굴이 튀어나오다가 하면 보살들이 웃고 있는 진언그림들은 단아하면서도 탐속한 미소로 낯날이 살아숨쉬는 듯 하다. 특히 성스러운 범자진언(梵字眞言) 위에 오색 물감을 탁한 터치로 처리한 것은 성속(聖俗)을 융화하고 깨달음과 무명의 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불이(不二)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 대해 원광대 정순일 동양학대학원장은 "엄숙한 복장의식의 격식을 탈피해 '판을 깨는 전시회'로 기획한 것은 살불살조(殺佛殺祖)의 기상이 흐른다"면서 "진언행자인 스님의 불복장 작업은 자신의 내면으로 빛을 돌이켜 불성을 확인하고 그 부처와의 대화를 실현하는 작업"이라고 평했다. 전시는 19일까지 이어진다. (02)733-5322 김성우 기자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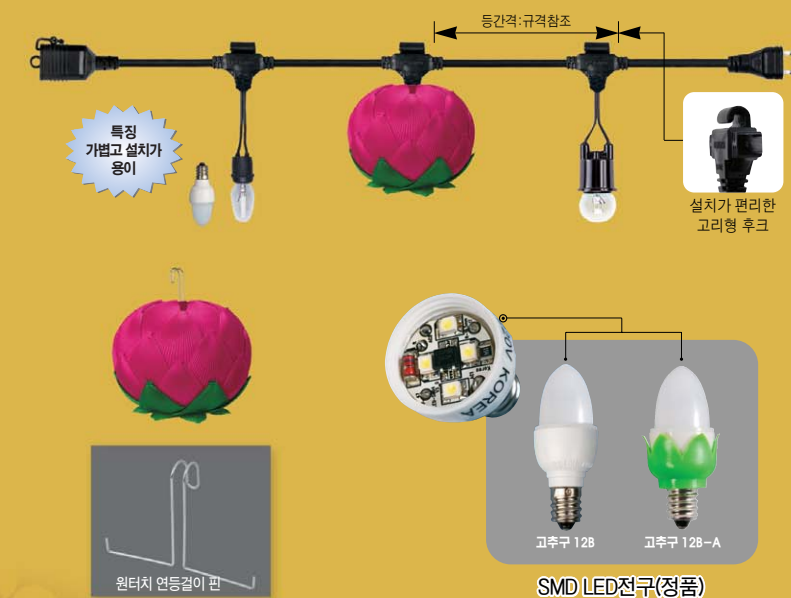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접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육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 4월 방생 안내 (간월암) 4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출발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불제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요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범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도로 사용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율동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안전인증 받은 제품이 행사용
▶ 고추전구와 인지전구 2종

▶ 범당용(공단용), 영가등, 오색등,
▶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